

# 신당역 살인 계기 구속영장 '조건부 석방' 도입 논의

## 대법 "구속 여부만 판단하면 사건 대응에 한계" 구속영장 심사 단계 '조건부 석방제' 논의 제시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 사건이 논란이 되자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재판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이 예규를 통해 스토킹행위 초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그 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전주환 사건과 같이 별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후 비극적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제안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리한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는데, 구속 여부만 결정하게 되면서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신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구속영장심사제도 단계에서 필요

하다고 밝혔다.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사법행정자치문화회의는 지난해 6월 분과위원회에서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보증금 납입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특별한 조건 아래 석방하자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9일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구성된 형사사법연구

반은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하여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오는 11월에 제작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이변과 같이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꽃무릇 피어난 전북대학교’**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교정에 석산(石蒜)이 만개해 있다. 석산은 일명 꽃무릇이라고 불리며 비슷한 상사화와 다르게 붉은색을 띤 꽃이다.

## 이은해·조현수 공판 절차 정지되나

### 법원 "내일까지 결정 예정"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 측 변호인이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의 정지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훈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조씨 측 변호인에게 “공판 절차 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감수하고도 정지 청구를 유지하는 입장이나”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공판 절차 정지를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추가돼 기존 공판에선 쟁점이 아니었던 ‘구조 가능성’이나 ‘구조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이씨와 조씨의 위치나 행적, 동선 등에 대해 증인끼리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호인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니 피고인 측에서 소방관 등 다른 증인을 부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공판 절차 중지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면서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공판 절차 중지와 별개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제시하지 못하고 증인에게 질문만 했던 증거”라면서 “피고인 측이 부당한 수사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있거나 수사보고서에 담겨 있던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은해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특이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 보험 계약과 다른 점 등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북어 정소와 피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

## 아파트 옥상서 홀로 놀던 5세 남아 숨져...추락사 추정

### 홀로 옥상층 올라가는 모습 확인

홀로 놀던 다섯 살배기 남자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25분께 순천시 한 고층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A(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군이 홀로 옥상층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황상 A군이 홀로 놀던 중 추락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

지 않았다. 아파트 옥상층 출입문은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잠겨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